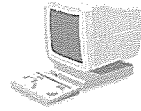


MS 사건 관련 실무자 좌담회



MS 사건 처리를 담당하였던 실무자들의 소회를 듣기 위해 2006. 3. 12.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하에서는 좌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실무자들의 소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박정원 팀장 ■ 이 자리는 그동안 MS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꼈던 실무자들의 소회를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각자 생각하신 소회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MS 사건을 총괄하셨던 곽세봉 과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곽세봉 팀장 ■ MS 사건은 제가 심판3과에 있었을 때 초안에 대한 검토의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획정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심사관에게 제시하여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처음 MS 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많은 기술적·전문적 내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효율적 검토를 위해 심판관리관실 직원을 팀원으로 일명 오메가팀(심결보좌검토팀)을 구성하여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심결보좌를 하면서 우선 기억에 남는 것은 120여페이지에 달하는 심결보좌 의견서와 40페이지 정도의 요약본을 몇 일 밤 야근을 하면서 만든 것으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MS 사건에 대한 쟁점이 정리되어 위원님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심결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이 보람이었습니다.

시정조치와 관련해서는 추운 겨울날씨 속에서 매일 새벽까지 시정조치 대안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보다 실효성있고 현실적인 시정조치 대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명분상 의견서를 심판관리관실에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심사관 의견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효율적 작성을 위해서는 심사관이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개인적 의견이 있었으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의견서 작성을 심판관리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의 판단이 옳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 팀장 ■ 곽세봉 팀장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MS 사건을 처리하면서 숨겨진

뒷 이야기를 들으니 MS 사건을 처리하면서 많은 고민과 고생을 하신 것이 느껴지네요. 다음으로 MS 검토팀의 일원으로 시장확정 부분에 많은 조언을 주셨던 신상훈 사무관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상훈 사무관 ■ 별로 기여한 바도 없는데 이렇게 소회를 말하려고 하니 조금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MS 사건을 통해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방대한 양과 주어진 과업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MS 사건처리는 분야별로 검토 분야를 세분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위원회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등 우리 위원회의 일처리에 있어서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MS 검토팀에 속하여 MS 사건처리에 일조를 하였다는 것이 제 개인적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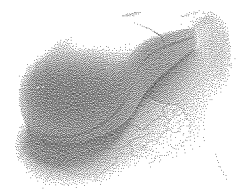
박정원 팀장 ■ 다음으로 MS 사건의 심사관으로서 누구보다 할 말씀이 많으실 황윤환 사무관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황윤환 사무관 ■ 위원회 경력이 얼마되지 않는 제가 MS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MS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심판1과에 재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MS 사건을 담당해보라는 처장님의 말씀으로 2004. 3. 경쟁국 내에 MS T/F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 후 1년 6개월정도 MS 사건을 전담하였습니다. 처음 MS 사건을 담당하면서 느꼈던 것은 관련된 국내자료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전문가 용역, MS사에 대한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하였고 설문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경험이 전문한 저로서는 많은 고생을 한 기억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심결단계 및 의결서 작성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어느 사건보다 심판관리관실에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의결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심판관리관실에서 의결서를 작성한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결서를 작성했다면 심사보고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인데, 심판관리관실에 법 적용 요건에 맞게 의결서를 잘 작성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원 팀장 ■ 메신저 부분의 심결보좌를 담당하신 이순미 사무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순미 사무관 ■ MS 사건은 어느 사건보다 많은 양과 쟁점으로 인해 피심인과 심사관의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심판1과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MS 사건만 전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심결보좌 의견이란 위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름대로 쟁점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정원 팀장 ■ 심결1팀으로 옮기고도 MS 사건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주신 이동미 사무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동미 사무관 ■ 우선 처음 위원회에 와서 MS 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을 개인적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MS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처음 담당하였던 배현정 사무관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MS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면서였습니다. 배현정 사무관에게 윈도우 미디어 서버 부분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많은 쟁점과 양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나 하는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곽세봉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MS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지금은 어느 사건을 담당하여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는 큰 자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정원 팀장 ■ 시정조치 부분을 담당하시고 의결서 작성을 총괄하신 구상모 사무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구상모 사무관 ■ 저는 MS 사건의 심리도중에 자리를 옮겨 MS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인상은 방대한 분량의 심사보고서의 양과 훌륭하게 정리된 심결보좌 의견이었습니다. 시정조치 대안을 검토하면서 추운 겨울밤 팀원들과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시정조치의 많은 부분을 새롭게 인식하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MS 사건은 위원회 사건처리에 있어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결합판매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경쟁회복 조치를 시정명령한 점,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법익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 개의 규정을 적용한 점, 의결서 작성에 판결문 작성방식을 많이 도입하여 증거에 의해 요건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을 한 점 등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선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의결서 작성을 총괄하면서 주어진 시간과 능력 부족으로 좀 더 완전한 의결서를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박정원 팀장 ■ 마지막으로 미디어 플레이어 부분의 심결보좌와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부분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주신 최장관 사무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장관 사무관 ■ MS 사건은 공정위 역사상 최대의 사건으로서 MS 사건에 대한 심결보좌를 담당하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MS 사건을 접한 것은 공무원 시

협 합격 후 중앙공무원 교육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각 부처에 대한 소개 시간에 공정위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미국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초거대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도 공정거래를 위반할 경우 분리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만큼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제가 공정위를 선택한 이유 중에 이런 강 의미가 한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MS 사건을 담당하면서 처음에는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의 양과 내용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사관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였고 준비를 철저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 의견서를 보면서 사실은 조금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심사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논리와 증거자료를 일체 부정하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원회의가 7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심인의 논리나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의 보충의견서를 보면서 그동안 내가 가졌던 선입견은 해소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서로 경쟁분석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논박하는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으며 또한, 피심인과 심사관 의견을 정리하고 검토의견을 정리하면서 몇 일 밤을 야근했던 기억도 공무원 생활에서 잊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정위의 역사적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점은 공직생활에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MS 사건을 담당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심층적인 경제분석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MS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 산하 전문 연구기관 등이 있어 소프트웨어 산업 등 전문적인 산업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 등이 축적되길 바랍니다.

박정원 팀장 ■ 실무자들의 숨겨진 뒷 이야기를 듣게 되어 참으로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여 주신 많은 실무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경쟁저널**

